

## 8천억 빛내고도 허덕이는 광주 재정 큰돈 드는 현안사업 '난제'

### 새 야구장·전통시장 활성화 등 2500억 당장 필요

광운대 광주시장이 민선 5기 신규 사업 및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예산 중 21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신규 사업·정책 추진으로 광주시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통시장 18곳에 매년 100억원씩 5년 간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광주의 새 야구장을 개방형으로 건립할 경우 최소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최근 평동 2차산업단지 2·3공구의 지원시설용지를 공급용지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차액 1280억원을 충당해야하는 등 연차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

평동 2차산업단지 2·3공구 내 m당 60만원인 지원시설용지 37만3276㎡ 중 32만8582㎡를 m당 20만원인 공급용지로 전환하면서 국비 지원 없이

신규사업	추정예산
개방형 야구장 건립	60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500억원
평동2차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전환	1280억원
37곳 소방도로 개설	?

순수한 시비로 그 차액인 1280억원을 3~4년 간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불필요하고 분량도 안 되는 지원시설용지를 부족한 공급용지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광주시의 부담이 늘어남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공급용지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어 시가 달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 시장이 약속한 광주 시내 37곳의 노후단독주택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손실보상금 보상,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도시철도 1호선 지원 등 고정비용이 매년 2000억원에 달해 이 같은 신

규 사업 및 정책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예산 부족상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나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재검토하고, 김치축제 등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해 신규 사업이나 정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현재 7834억원 수준인 지방채의 추가 발행까지 갈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소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난 5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8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도 확대되고 있어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으로 연발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사업은 계속 거론되고, 국비보조사업을 안 할 수도 없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노조의 계란 투척

타임오프제(근로시간제한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 전임자들이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내방동 광주공장 본관 앞에서 사측의 전임자 무급휴직 발령에 항의하며 본관 건물을 향해 달걀과 물병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청와대 조직개편...사회통합수석 신설

### 다음주 중 참모진 인사...대통령실장 임태희 유력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정기획수석 소관 업무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실장 직속으

로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에 이관됐다. 또 사회정책수석은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수석으로 개편됐으며 메시지기획관은 홍보수석실에 통합돼 홍보와 대통령 메시지관리, 대통령 이미지관리(PI) 업무가 일원화됐다. 홍보수석 산하 2명이던 대변인은 1명으로 조정되고 해외홍보비서

관이 신설됐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대통령실장으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 인사는 다음 주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책 포함) 1정책지원관, 1정책실장, 8수석(정

## 전주언 서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관권 선거'와 '인사 비리'로 기소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두 가지 혐의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전남에서 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 청장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7일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청장이 서구청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청장은 '관권 선거'와 '인사 비리' 사건 가운데 한 건이라도 이대로 혐의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

록 돼있다. 재판부는 또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관여한 임모(56·4급), 손모(56·5급)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봉모(50·5급)씨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이날 70만~9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 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는 등 '관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2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는 승진 대가로 공무원 2명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져 또다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가운 '아르브스토'

### 통념 깬 '불투명 유리' 색다른 멋

'유리는 투명하다'는 통념을 깬 이탈리아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 스키타본(Schiavon) 가운의 대표작. 물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불투명하고, 광택이 전혀 없는 검은 유리를 이용해 색다른 멋을 선사한다.

노란색과 파란색 유리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다시 검은 유리로 감싼 뒤 조각칼로 표면을 도려내 작품을 완성했다.

한편 '유리의 도시' 베니스 무라노 섬의 보석 같은 유리 작품 120여점을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은 오는 8월22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학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과 희망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제주여행의 New trend!

초대형 여객선, 한도-제주 3시간

문의전화 **1688-2100**

www.familexpress.co.kr